

또 밤 잠 설치겠네... 내일 EPL 개막

맨시티·맨유·첼시 '빅3 우승 대격돌'

2012-2013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가 한국시간으로 18일 밤 11시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스완지시티전과 아스널-선덜랜드전 등 개막전 7경기를 시작으로 9개월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맨시티-맨유-첼시 '빅3 우승 격돌' =프리미어리그에서 전통의 '빅4'는 일반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널을 손꼽는다. 맨유는 프리미어리가 공식 출범한 1992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총 12차례 우승해 최강자로 인정을 받고 있고 첼시와 아스널이 나란히 세 차례 우승해 그 뒤를 잇고 있다.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우승을 못했지만 12차례나 4강에 진입해 녹록치 않은 자리를 과시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상황이 변했다. 리버풀은 최근 세 시즌 동안 6~8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아스널 역시 2003-2004시즌 우승 이후 8시즌 동안이나 우승을 못하면서 '빅4'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는 구단주의 엄청난 투자 속에 스타급 선수의 영입으로 지난 시즌 맨유와 첼시 등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해 '신흥 명문'으로 떠올랐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지역 라이벌인 맨유와의 치열한 우승 경쟁에서 마지막 경기까지 승점이 같았지만 골 득실에서 앞서 극적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전통의 강호인 맨유와 첼시를 필두로 맨시티로 이뤄진 '신흥 빅3'가 치열한 우승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 활약 기대... 박주영·지동원 생존경쟁

▲'힘내라!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할 한국인 선수는 맨유 유니폼을 벗고 QPR로 이적한 박지성(31)을 필두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맹활약한 박주영(아스널)과 지동원(선덜랜드) 등 3명이다.

박지성은 일찌감치 영국 언론으로부터 QPR의 키 플레이어로 인정을 받고 있어 '제2의 전성기'를 점쳐볼 만하다.

지난 시즌 17위로 겨우 강등을 면한 QPR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박지성과 함께 맨유에서 한술밥을 먹은 파비우 다 실바와 지난 시즌 임대로 뛴 삼바 디아 키테를 남시로부터 400만 파운드를 주고 완전 영입하는 등 전력 보강에 애를 썼다.

하지만 영국 언론은 QPR의 예상성적을 강등권인 18위로 예상해 박지성의 활약이 더욱 간절하다.

지난 시즌 그라운드보다 벤치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박주영과 지동원이 주전으로 자리를 잡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아스널의 박주영은 최근 이적설이 퍼지는 데다 최근 '골잡이' 루카스 포돌스키(독일)의 영입으로 팀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박주영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2골을 넣어 대표팀 최다득점을 기록해 골감독을 끌어올렸지만 아스널의 프리시전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선덜랜드의 지동원은 '백업 공격수'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전급으로 올라서려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보여준 과감한 중거리포와 몸싸움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해외 태극전사들



박지성 험난한 도전길

지동원·박주영 주전경쟁

올림픽 맹활약 구자철·기성용

전력 보강 이청용·김보경

“제2의 전성기 보여준다”

“한발짝 더 뚫는다”

“소속팀서 황금기 연다”

“1부 리그서 꼭 뚫는다”

‘충직만 담당되는 인제 그만! 키 플레이어라 불러다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미드필더 박지성(31·퀸스파크 레인저스)이 험난한 도전길에 나선다.

박지성은 오는 1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로프트로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스완지와의 홈경기부터 2012-2013시즌 프리미어리그를 시작한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명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떠나고서 처음으로 나서는 공식 경기다.

박지성은 맨유에서 불합한 숫자 13을 등번호로 달고 굶은 일만 도맡은 ‘마당쇠’였다.

그러나 새 동지인 퀸스파크에서는 행운의 숫자 7을 배번으로 달았으며 모든 면에서 리더 구실을 하게 된다.

퀸스파크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위로 강등권(18~20위)을 간신히 벗어난 약체다.

박지성보다 기량이 낫거나 스타성이 짙은 선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구단이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박지성이 퀸스파크의 선수가 뛰는 것은 최고 구단의 보물 선수가 팔려 구단의 최고 선수로 새 출발하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는 안정적인 출전해 자신만의 창의적 플레이로 팀의 성장을 주도하고 싶다는 박지성의 욕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맨유에서는 결장이 잦았고 플레이 스타일도 그때그때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박지성은 퀸스파크 이적으로 의미를 ‘새로운 도전’에 두며 “퀸스파크를 다른 차원의 팀으로 변모시키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 휴즈 퀸스파크 감독은 “박지성은 맨유에서 기쁨을 잘 칠한 기계였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기량을 꽃피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 리그가 개막되면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딴 태극전사들은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 피투박한 주전 경쟁에 돌입한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했던 ‘새내기’ 지동원(선덜랜드)은 올 시즌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 가장 열심히 뛰어와야 할 선수 중 하나다. 지동원은 런던올림픽 축구 8강전에서 영국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한국에서 개최된 피스컵 축구대회에서 선덜랜드의 오늘 감독은 지동원을 아주 뛰어난 선수라고 치켜세우면서 유럽 선수들보다 다소 뒤떨어지는 신체적인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지동원이 약점으로 꼽힌 신체적 열세를 극복하고 선덜랜드의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주장으로 맹활약하며 모든 경기의 출전을 보장받았던 박주영(아스널)은 소속팀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피 달리는 경쟁이 예고돼 있다.

2011-2012 시즌이 진행된 1년 동안 프리미어리그 정규리그 출전은 1경기에 그쳤고 컵대회 3경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2경기를 뛰는 등 만족할 만한 활약을 보여줄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아스널의 아르센 벵거 감독은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박주영에 대해 “제 갈 길을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사실상 이적은 종용한 언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스널도 박주영을 마음 편히 보낼 처지는 아니다. 지난 시즌 팀의 성적을 책임졌던 로빈 판 페르시가 아스널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한 것. 판 페르시의 맹활약은 박주영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의 이적이 박주영에게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올림픽 축구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최고의 스타 자리에 올라선 구자철-기성용이 소속팀에서도 빛날 수 있을까.

구자철이 소속된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는 오는 25일 밤 10시 뒤셀도르프를 상대로 개막전 홈경기를 치른다.

지난 시즌 강등 위기에 빠져 있었던 아우크스부르크는 볼프스부르크 소속이었던 구자철을 임대해 온 덕을 톡톡히 봤다.

구자철 임대 후 17위에서 15위로 올라서며 강등 신세를 벗어난 것. 지난 시즌 독일에서 터진 5골 중에서 4골이 아우크스부르크 임대 이후 터져 나왔다.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주장을 맡아 인상적인 활약을 보인 만큼 올 시즌에도 팀에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중원의 사령관으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기성용(셀틱)은 이번 시즌 셀틱을 떠날 것이 확실하다.

아직 셀틱과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셀틱 입장에서 최고의 이적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성용을 떠나보낼 적기이기 때문이다.

기성용은 이번 올림픽에서 6경기를 모두 뛰며 플레이메이커로서 다양한 재능을 보여줬다.

중원에서 공격수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길게 찰러주는 패스는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냈다.

세계 톱클래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림픽 동메달로 병역 혜택까지 받은 그의 몸값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퀸스파크레인저스(QPR), 풀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성용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다.

올림픽 대표팀 내에서도 가장 친한 사이로 알려진 구자철과 기성용이 이번 시즌 어떤 빛을 낼지 주목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문턱인 챔피언스(2부리그)에서 아쉬움을 삼키는 한국인 선수들이 있다.

지난 시즌 개막 전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이청용(24·풀럼)과 올림픽 직전 새 동지로 옮긴 김보경(23·카디프시티)이 그 주인공이다.

이청용은 그야말로 ‘절치부심’이다.

이청용은 지난해 7월 뉴포트카운티 AFC와의 프리시전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강한 태클로 오른쪽 정강이뼈가 이종으로 골절됐다.

수술대에 올랐던 이청용은 이후 지난 시즌을 고스란히 재활에 바쳤다.

에이스 이청용의 부재 속에 풀럼 원더러스는 부진을 거듭하다 10승6무22패(승점 36)로 시즌을 마감했다.

프리미어리그 20개 팀 중 18위를 차지해 2군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면치 못했다.

2012-2013 시즌 풀럼은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스럽게도 이청용은 지난주 3부리그 팀인 트라미어 로버스FC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79분을 소화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일본 J리그에서 영국으로 무대를 옮긴 김보경은 이청용보다 마음이 한결 여유롭긴 하지만 욕심을 내 불만하다.

1899년 창단한 카디프는 1962년 이후 1부 리그에 소속된 적이 없이 50여년간 2, 3, 4부 리그를 전전했다.

그러나 카디프는 2009-2010시즌부터 세 차례 연속 챔피언스 플레이오프에 오른 자격이 있는 팀이다.

비록 세 시즌 내내 플레이오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부 승격의 꿈이 무산된 카디프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

카디프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김보경을 포함해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 리버풀에서 각각 헤더 헬거슨과 크레이그 벨라미 등을 영입해 전력을 보강했다.

연합뉴스